

강길선 전북대 교수 '해월리에 별이 쏟아지다'

세 번째 수필집 출간... 뉴노멀2.0 시대 무상함 표현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가 세 번째 수필집 '해월리에 별이 쏟아지다'를 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체의공학자이자 교육자, 수필가로 활동해 온 강 교수는 15년 전 안주군 소양면 해월리에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겪고, 생각하는 다양한 내용을 매일 매일 글로 풀어내며, 지역 신문 등에 칼럼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세상에 나온 글들을 엮은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수필집을 통해 지극히 전원생활에서 느끼는 소박한 자연의 맛과, 연구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뉴노멀2.0 시대 속에서의 '무상(無常)함'을 잔잔히 서술한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왕래가 끊기고, 의료 선진국을 자처하던 구미 국가들의 민낯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뻘뻘함이 여전했고,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이 멈추자 거침없던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없어서 푸른 하늘을 유지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던



강길선 교수



'해월리에 별이 쏟아지다'

'Made in China'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게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것이라 저자는 말한다.

이와 함께 저자는 페플라ستيك·미세플라ستيك과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 등으로 인한 지구 6번째 대멸종의 도래, 화석연료의 지구오염으로 인한 RE100의 필요성,

탈원전 논쟁 등 필수적인 지구환경 보호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내고 있다.

북핵 긴장 고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간 패권 싸움, 일본 극우파의 재등장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여야 간의 이적투구만이 계속되는 국내 정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대학의 입시 문제까지 다양성을 담았다.

그러나 저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BTS와 K-팝, 손흥민, 피아니스트 조성진, 차준환 선수, 오징어게임, 수리남, 미나리, 윤여정, 이정재, 블랙핑크 등의 선전에 주목하기도 한다. 전술한 뉴노멀 시대와 지구 대멸종 시대 도래의 진정한 해결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시스템, 국민의식 그리고 젊은이들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한편 강길선 교수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여의도 고등학교, 인하공대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생체의공학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전공 서적 '의료용고분자', '재생의 학술심사리뷰 I, II, III권', 700여 권 논문, 100여 권 총설, 80여 건 특허, 신문컬럼 다수 및 수필집 '해월리의 별과 꿈', '세계대항해와 파도의 나라: 포르투갈 문명기'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불후의 클래식 정동하 & 알리 콘체르토' 열린다

정읍시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와 함께 우수작품 초청공연 '불후의 클래식, 정동하 & 알리 콘체르토'를 오는 10월 14일 오후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35인조 오케스트라와 인간의 목소리가 협연하는 콘체르토 공연이다.

공연에는 깊은 감성과 최상급의 기교를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보컬리스트 정동하와 세련된 목소리와 압도적인 고음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 알리가 출연해 최상의 라이브 공연을 펼친다.

또한 운승업 지휘자의 힘 있고 섬세한 지휘 아래 클래식 대중화의 선두주자인 아시안 클래식 킥플레이어즈 오케스트라의 생동감 있는 연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29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모든 좌석 10,000원이다. 1인당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65세 이상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 군민 위한 특별 무료상영 '달이 지는 밤'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 후원으로 무주 배경 영화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지원하고 무주산골영화제가 기획 제작한 장편영화 '달이 지는 밤'이 지난 22일 전국에 개봉하며 절찬리 상영중인 가운데, 무주산골영화관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의 후원을 받아 무주 군민을 위한 '달이 지는 밤' 특별 무료상영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는 무주 군민의 새로운 문화 향유를 위하여 무주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지원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작년 2021년 4월에는 '미나리', '자산어보'와 같이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영화를 선정하여 무료 상영회를 후원, 무주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는 무주 배경영화 '달이 지는 밤'의 무주 군민 무료상영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달이 지는 밤'은 무주에서 100% 촬영해 군민이 참여한 장편영화로, 무주를 떠난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리움의 영화다. 이미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제46회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을 받고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으로 소개되는 등 유수의 영화제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특히 '조제', '더 테이블'의 김종관 감독과 '괴이', '한여름의 판타지아'의 장건재 감독이



함께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아 제작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으며, 영화와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금순, 안소희, 강진아, 박민규 네 배우의 활약도 돋보이는 영화다.

15세 이상 무주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주산골영화관에서 10월 13일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상영시간표는 무주산골영화관 카카오톡 채널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무주산골영화관(063-322-7053)으로 가능하다. /무주=전문성 기자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남원시가 주최하고 지리산섬진강문화재활용사업단이 주관하는 2022 남원 문화재 야행이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광한루원과 요천월궁광장(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가을밤 즐기는 '남원 문화재 야행'

30일~10월 2일까지 광한루원·요천월궁광장 일원서 개최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남원시가 주최하고 지리산섬진강문화재활용사업단이 주관하는 2022 남원 문화재 야행이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야간(18시~23시)에 광한루원과 요천월궁광장(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문화재야행은 유·무형 문화재 및 문화시설을 활용해 기존과 차별화된 야간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 역할 및 중·장기적 지역재생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이다.

남원 문화재야행은 올해 3회째로, 광한루원 장전스토리인 달나라 궁전을 재현해 옥황상제, 견우지녀, 토끼와 거북의 이야기를 토대로 춘향으로 고착화된 남원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새로운 콘셉트로 문화재 야간 탐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밤에 즐길 수 있는 여덟 가지의 주제(8경)로, 경관조명이 펼쳐진 광한루원의 밤풍경을 관람하는 야경(夜景), 옥황상제 길놀이 퍼레이드를 즐길 수 있는 아로(夜路)를

비롯해 야사(夜史)·야화(夜畫)·야설(夜說)·야시(夜市)·야식(夜食)·야숙(夜宿)으로 구성돼 있다.

요천둔치의 월궁광장에서는 옥황상제 일행의 유등 점등식으로 개막식을 알리고, 지역청년들이 운영하는 프리마켓, 야식을 즐길 수 있는 월궁주막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안초(관소리), 김무길(거문고), 송화자(가야금)과 남원시립국악단이 함께하는 무형문화재의 공연도 펼쳐지며, 청년 농악단의 퓨전 농악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1970년대 행해졌던 낙화놀이를 재현할 계획이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예약으로 입장권, 체험키트 및 의상대여 포함 1만원으로 네이버페이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고, 남원 청년들이 농사짓고 만든 남원 특산물 패키지를 20,000원으로 판매도 하며, 유튜브 '남원문화재야행'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시회 개최

장수군이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장수군 한누리전당 전시관에서 '전북의 산하를 날다'라는 주제로 한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윤점용)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총 47명(관내작가 33명, 출향작가 14명) 작가의 서예, 문인화 작품이 전시된다.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세계서예전

북비엔날레는 전북도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14개 시, 군 지역 전시가 개최되고 있다.

장수군에서는 장수군민의 날인 9월 28일에 윤점용 조직위원장, 최훈식 군수, 장정복 군의회의장, 박용근 도의원, 관내 기관단체장과 서울 송동욱·남원 이수영 출향작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